

법회안내

천불사 (0523)82-1463
화엄기도 매월말일~다음달 28(음) 오후시
지장제일법회 매월18일 오전 10시
관음자일법회 매월2일 오전10시

춘천 석왕사 (0361)52-504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림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오전11시
보림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오전11시
강원대학교학강과 매주 목요일 저녁~9시

부산 해월정사 (051)741-7762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림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고등학교학강과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3시

법동원사 (02)934-8657
선지식 초창법회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7시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참선법회 매월 월·목요일 오후2시

삼총사 (0441)847-7296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청평사 (0361)54-1092
일반선도법회 매월 1·15(음) 오전 10시
지장제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인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참선으로 맑은마음 찾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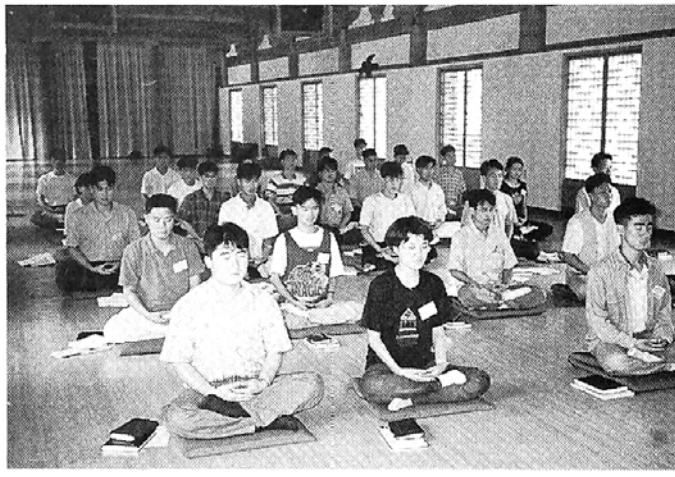
가속화된 상품주의 문명이 토해내는 수많은 언어와 욕망의 공해를 참선으로 정화해 보자.
수선회(회장 김영대)는 10월24일부터 11월7일까지 6주간 본회 선방에서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김영대회장의 지도로 매주 화·금요일 주2회 개최될 이번 강좌는 △24일 참선의 종류 △28일 선종 발달사 △31일 화두 참구법 △11월4일 화두의 중요성 △7일 선방의 법도 등의 일정을 진행.
체계적인 이번 교육에 동참해 바른 신심을 갖고 수행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02)732-5960

삼보마다 일배 탐들이

세걸을 걷고 절 한번하고 또 세걸을 걷고 절 한번... 이렇게 삼보일배를 하며 탐들을 한다.
파라미타 경주지회(지회장 성형스님)는 26일 불국사(설소스님)에서 '삼보일배 수계 및 탐들이 법회'를 연다.
청소년 및 일반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법회는 3명이 1개조로 불이문에서 정운교, 백운교, 자하문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일정으로 마련된다.
이어 다보탑과 석가탑에서 탐들이 행사를 갖고 무실전에서 수계법회를 갖는다.
한편 이날 법회는 육법공양, 도량청소활동등도 펼쳐 불심증진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561)746-9912

송광사 무박2일 수련

조계종림 송광사(주지 현고)는 고즈넉한 산사에서 철야 용맹정진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는 25~26일 무박 2일의 일족(遠足) 수련법회를 연다.
25일 송광사 사자부에서의 철야정진·새벽예불, 26일 천자



암·굴복제 산장 순례, 선암사 참배·회향으로 진행될 수련법회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듯하다.

'각설이타령' 생활법문

'각설이타령과 함께하는 부처님 말씀' 열필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제목의 법회가 열린다.
부처님 말씀을 쉬운 생활 속의 일화들로 풀어 대중포교에 힘쓰고 있는 밀양 선우사 주지 지연스님을 조계종 부산광역시

법정스님의 감로법문

텃밭이 있을 때만이 새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텃밭 충만을 강조하신 법정스님(광교항기물

계시관

계모임회주).
결상사(주지 청화)는 11월4일 결상사 법당에서 창건기념 법정스님 법회를 병행한다.
12월 개원예 앞서 마련되는 이번 법회는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법정스님의 감로법문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법회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불자들이 함께 감로수 같은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광교항기물계 모임은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할

한 도자기 전시회를 연다.

한 도자기 전시회를 연다. (0562)44-3222
△사화전시회=국립전주박물관(관장 이종철)이 11월9일까지 '묵향과 채색의 마음-石田 환옥·碧川 나상목의 書畫' 특별전을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조명, 예향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지역문화화를 보급 활성화시키고자 마련했다.
선전의 서예작품 51점과 벽화의 회화작품 50점 등 1백1점이 선보인다.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한국불교 전통적인 수행법인 참선. 그러나 재가불자들이 접근하기엔 쉽지 않다. 최근들어 참선일문자를 위한 강좌가 개발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직지사에서 열린 참선수련법회 모습.

불우이웃 따뜻한 거울을

바람이 한결 차가워진 가을,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바자회가 열린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에서는 10월31일과 11월1일 양일간 무의탁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겨울준비를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먹거리, 생활용품, 의류 등이 판매될 예정이어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02)985-0161

새도약 꿈꾸는 대불련

대불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불교의 대학생 포교를 위해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있는 대불련 청년들은 '대불련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하루잔치'를 준비, 대불련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꿈꾼다.
25일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조계사 부근 캐미리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대불련이 참된 청년불자로 거듭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2)723-5850

수강료는 1만원. (02)730-9108

△법화경 특강=한국승가대학교 원(원장 공덕)은 24일 광주 안보회관 5층 대강당에서 '법화삼부경' 특강을 개최한다.
(033)952-8711

△답사·순례

△백암사·내장사=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회장 김용직)는 27일 백암사와 내장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선착순 42명이며 동행금은 3만원.
(02)3672-8391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최동원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팔공산 동화사 경치좋은 산길을 따라 있는 부도암, 내원암, 양진암, 연불암은 대구산악인이 자주 찾는 암자이며 등산코스이다.
초등학교 교사이던 나는 20대부터 일요일이면 산이 좋아 산에 오르고 사람을 찾게 되었다.
산심이 있다가보다 부처님전에 맑은 마음으로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고 삶의 지표로 삼았다.
그러기에 1965년 여성산악회(南山會)를 창립하여 회원들과 전국의 명산 사찰을 찾는 즐거움속에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금년에 10월중에 매일신문사와 공동으로 제34회 여성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연보호, 문화재탐방, 건강관리 등 더불어사는 사회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부처님 앞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는 어느날 갑작스런 막내동생 동주의 죽음으로 양진암에서 재를 가지면서부터였다.
인생무상과 삶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아버님의 49재도 차례로

안 140여쌍의 부부를 탄생시켜 이혼없는 가정을 꾸려나기게 도와 주었다.
90년대에 접어들어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미약한 재산을 내놓아 사회복지법인 동원어린이집을 설립했다.
이창 7시무렵이 되면 아잠아잠 걸어들어오는 130명의 어린이를 즐겁게 맞고 있다.
사회복지에 먼저 눈을 뜬 개신교·천주교에 비하면 우리 불교가 가장 늦다는 생각이 들어 어린이집 설립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7년 전에는 팔공산 동화사와 과거사 중간에 있는 부인사(符仁寺·夫人寺)와 인연이 닿았다.
11년전 성타비구니스님이 주지로 오시며 먼저 선덕여왕송도전을 건립하고 대웅전 불사를 그 다음으로 준공하였다.
4년 동안 삼월 보름이면 절에서 정성스러운 송모제를 올렸는데, 사찰경내에서 중풍의식으로 모시기가 어려워 대구 여성계에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을 찾

“작은 보시에 보람을” 매일 다짐

보육·갱생등 이웃위한 일 팔걷고 나서

양진암에서 울리게 되었다.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 수도에 정진하시는 비구니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여성은 약한 것이 아니다. 보람있는 삶으로 무엇이든 행동하는 불자가 되자. 작은 보시에 보람을 찾자”
그 당시 6·25동란을 겪으면서 가난했던 사회는 여성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았다.
“보시하자” ‘봉사하자’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니 행동하는 불자가 되자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때 한국BBS연맹의 이사가 되어 남주미 500명, 구두담이 300명을 조직하여 교육과 기술지도로 직업을 갖게하여 자립시킨 후 얻은 ‘거지엄마’의 별명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0년대 사회생활은 좀 넉넉하였으나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교도소의 출소자를 갱생시키는 일로 출소자 참여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이제 외국인 관람지도 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제9교구 동화사신도회장을 권유받았다.
배움도 적고 능력이 모자라며 불자로서 크게 공덕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많았다.
“보시하자” ‘봉사하자’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니 행동하는 불자가 되자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때 한국BBS연맹의 이사가 되어 남주미 500명, 구두담이 300명을 조직하여 교육과 기술지도로 직업을 갖게하여 자립시킨 후 얻은 ‘거지엄마’의 별명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0년대 사회생활은 좀 넉넉하였으나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교도소의 출소자를 갱생시키는 일로 출소자 참여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이제 외국인 관람지도 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제9교구 동화사신도회장을 권유받았다.
배움도 적고 능력이 모자라며 불자로서 크게 공덕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많았다.
“보시하자” ‘봉사하자’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니 행동하는 불자가 되자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때 한국BBS연맹의 이사가 되어 남주미 500명, 구두담이 300명을 조직하여 교육과 기술지도로 직업을 갖게하여 자립시킨 후 얻은 ‘거지엄마’의 별명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0년대 사회생활은 좀 넉넉하였으나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교도소의 출소자를 갱생시키는 일로 출소자 참여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이제 외국인 관람지도 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제9교구 동화사신도회장을 권유받았다.
배움도 적고 능력이 모자라며 불자로서 크게 공덕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많았다.
“보시하자” ‘봉사하자’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니 행동하는 불자가 되자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때 한국BBS연맹의 이사가 되어 남주미 500명, 구두담이 300명을 조직하여 교육과 기술지도로 직업을 갖게하여 자립시킨 후 얻은 ‘거지엄마’의 별명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0년대 사회생활은 좀 넉넉하였으나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교도소의 출소자를 갱생시키는 일로 출소자 참여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이제 외국인 관람지도 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제9교구 동화사신도회장을 권유받았다.
배움도 적고 능력이 모자라며 불자로서 크게 공덕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많았다.
“보시하자” ‘봉사하자’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니 행동하는 불자가 되자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때 한국BBS연맹의 이사가 되어 남주미 500명, 구두담이 300명을 조직하여 교육과 기술지도로 직업을 갖게하여 자립시킨 후 얻은 ‘거지엄마’의 별명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0년대 사회생활은 좀 넉넉하였으나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교도소의 출소자를 갱생시키는 일로 출소자 참여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이제 외국인 관람지도 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제9교구 동화사신도회장을 권유받았다.
배움도 적고 능력이 모자라며 불자로서 크게 공덕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많았다.
“보시하자” ‘봉사하자’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니 행동하는 불자가 되자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때 한국BBS연맹의 이사가 되어 남주미 500명, 구두담이 300명을 조직하여 교육과 기술지도로 직업을 갖게하여 자립시킨 후 얻은 ‘거지엄마’의 별명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0년대 사회생활은 좀 넉넉하였으나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교도소의 출소자를 갱생시키는 일로 출소자 참여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일일

△천불가 경연대회=부산불교 어린이지도자회(회장 정여)는 22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부산경남 불교어린이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12회 천불가 경연대회 및 연꽃한마당을 펼친다.
천불가, 독경, 민속놀이 한마당으로 꾸며지며, 접수마감은 22일까지.
(051)819-3785

△한정성법사초창법회=해광맹인불자회(회장 김부봉)는 맹인학교 출신인 문수반동문회와 함께 26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한정성법사 초창법회를 병행한다.
(051)462-3292

△동창회=중앙승가대 제3회 동창회(회장 해관)는 22일 오후 2시 개운사에서 정기동창회를

계시관

계시관.
11월7일까지 중국 성지순례단을 모집한다.
구화산, 황산, 보타산 등지를 7박8일 일정으로 답사.
(02)730-0020
△어린이 합창단원=분황사(주지 중수)는 선제어린이합창단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초등학교 3년에서 6년의 어린이로 25일 불교교육원에서 실기시험 후 선발.
(0561)42-9922
△파출원교육생=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제7기 파출원 교육생을 뽑는다.
선착순 40명이며 교육기간은 11월3~7일 오후1시~5시.
(042)633-1141

모집

△학인=영산원(원장 철우)은 11월5일까지 기초과정을 이수할 학인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3년이며 제출서류는 승려증 사본과 은사스님 추천서.
(053)984-4550
△성지순례단=반야여행사(대표 현근스님·조계사 주지)는

전시

△도자기 전시=열린가람 학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난승)은 26일까지 무료양로원 건립을 위

한 도자기 전시회를 연다.

한 도자기 전시회를 연다. (0562)44-3222
△사화전시회=국립전주박물관(관장 이종철)이 11월9일까지 '묵향과 채색의 마음-石田 환옥·碧川 나상목의 書畫' 특별전을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조명, 예향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지역문화화를 보급 활성화시키고자 마련했다.
선전의 서예작품 51점과 벽화의 회화작품 50점 등 1백1점이 선보인다.

강좌

△기초교리=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만해교육관에서 3개월과정 불교 기초교리 강좌를 갖는다.

수강료는 1만원. (02)730-9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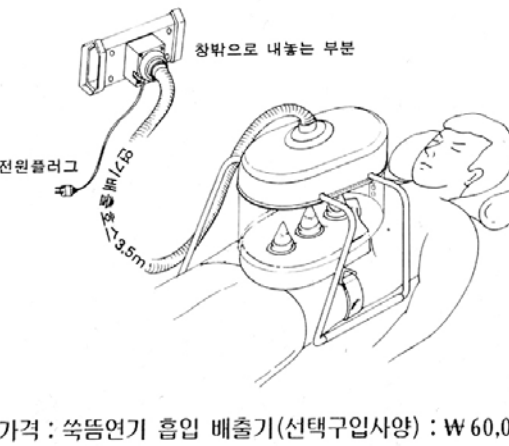
△법화경 특강=한국승가대학교 원(원장 공덕)은 24일 광주 안보회관 5층 대강당에서 '법화삼부경' 특강을 개최한다.
(033)952-8711

답사·순례

△백암사·내장사=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회장 김용직)는 27일 백암사와 내장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선착순 42명이며 동행금은 3만원.
(02)3672-8391
△관동사·반야은성=국토문화 순례 터사람(대표 전숙희)은 25,26일 양일간 경남 창녕에 있는 관동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김해 김수로왕릉 참배와 양산 통도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02)725-1284

썩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썩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썩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썩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을 열어두고 하다보니 썩연기로 인해 썩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썩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썩뜸을 썩는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썩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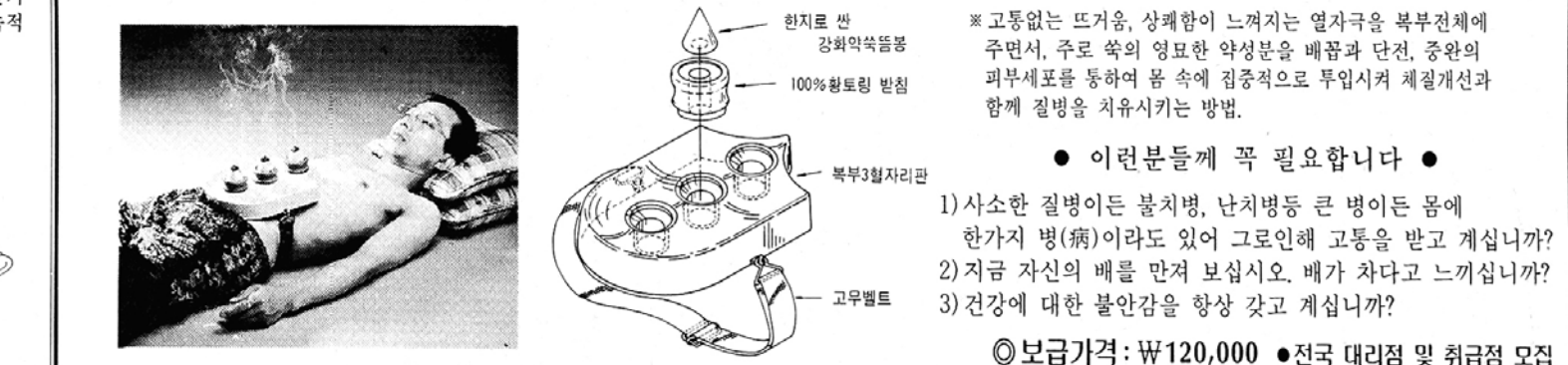
가격 : 썩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 60,00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강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바라밀썩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썩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썩뜸기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썩뜸 요법의 세대교체 => 건강장수 썩뜸기” 열풍!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철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 요철에 장수썩뜸을 뜨십시오...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 보급가격: ₩120,000 ●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 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